

'순창 고추장불고기 브랜드' 구축 순항

관내 5곳 선정해 컨설팅 진행... 대표 먹거리 개발

순창군이 '순창고추장불고기 브랜드' 구축에 순항하며, 맛있는 도시로의 변화를 꾀한다.

군은 그 동안 순창 고추장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지만, 식품관의 변화로 고추장 소비는 줄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 다니는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고추장을 활용한 대표 먹거리 개발에 나섰다.

특히 이번 브랜드 구축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석쇠고추장불고기촌'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관내 불고기 음식점에 대한 불을 일으키는 전 초단계라고 볼 수 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관내 5곳 업소를 선정해 원광보건대학 외식조리학과

김문숙 교수팀과 식당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최근 마무리 짓고, 불고기 메뉴 5종을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 상품화에 성공한 5종은 순창 고추장 향아리 불고기(순창예찬), 연잎밥 고추장불고기 정식(미소식당), 순창 된장불고기(영빈회관), 순창고추장 석쇠불고기 한정식(가림한정식), 순창고추장 통오징어 불고기(중앙회관) 등이다.

상품화 뿐만 아니라 고추장 불고기 5종이 순창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간지를 비롯,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바 이럴마케팅도 추진해 참여 식당들의 매출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군은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에 컨설팅을 받은 5곳의 시범업소에 추가로 관내 업체를 선정해 2차 컨설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끝난 1차 컨설팅은 식당별 메뉴 파악 후 개선책 제시에 중점을 뒀다. 향후 진행될 2차 컨설팅은 경영마인드, 세부적인 메뉴 진단 및 메뉴 체계화 등 업소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으로 순창 고추장불고기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순창 고추장 불고기 브랜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관내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식품산업 개발 선도

웃나무 한시적 원료 사용 승인... 유색밀 활용 지역식품 산업화 추진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가 웃나무 산업을 선도하여 임실군 식품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있다.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는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을 통해 임실 참웃소리 활성화를 위해 웃을 활용한 막걸리, 장류상품을 개발한데 이어 2019 농림축산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인체적용 전시험에 대한 연구비를 일부 확보했다.

이에 올해부터 웃나무의 '한시적 원료 승인'을 통한 웃의 식품 적용의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한시적 원료 승인을 위한 웃나무 특성시험이 진행 중으로 특성시험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식품원료로 인정받을 계획이다.

한시적 식품원료 승인은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제 전까지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웃을 활용한 상품은 식품공전 기준에 따라 장수버섯을 활용하여 우투시울 성분을 제거한 웃나무 물추출물을 장류, 발효식초, 탁주, 양주, 청주, 과실주에 한하여 발효공정 전에만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웃을 활용한 식품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는 임실군 특화를 통해 기능성은 유지하면서 우투시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추출공정을 활용함으로써 웃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단가절감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갖출 계획에 있

다.

또한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김경훈 박사), 부산대학교(권미라 교수)와 함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동안 식품특허 '아리후'를 통한 유색밀을 활용한 지역특화 가공식품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최근 농촌진흥청과 연구소간의 협약을 마친 상황이다.

'아리후' 수입밀과 차별화된 건강한 우리 밀 개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탄생한 검붉은색의 유색밀로 농촌진흥청에서 산업재산권(식품특허)을 출원해 산업체와 지자체 등 3곳에 기술 이전을 한 상태로 일반 밀보다 안토시아닌, 탄닌,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7월까지 노후상수관로 교체

남원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관 교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금년에 노후상수관로와 누수관 14.78km를 교체하기로 하고 지난 3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공했으며, 사업지역은 요천로 2.3구간과 명지 2

차, 화정동 4곳이다. 누수관 교체는 용담마을, 신촌마을, 금지 상귀 등 3곳이다.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관로 매설 공사를 7월까지 완료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고 여름철 누수물 수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녹물, 누수,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해 상

수도복지를 실현할 계획으로, 도시가스과 하수관거 시행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상수관로 교체사업을 병행해 이중공격을 방지하는 한편, 사업비를 줄이고 있다.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2013년부터 노후상수관로 79.4km를 교체했으며, 내년에는 노암동 일대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을 추진해 시내권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완성한다는 복안이 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11일 순창 군민의 장 역대 수상자들을 초청해 군의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군정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순창, 역대 군민의 장 수상자 한자리

총 115명중 24명 참여... 군 주요 시설 견학

순창군이 11일 순창 군민의 장 역대 수상자들을 초청해 군의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군정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1977년 수상자부터 올해 수상자까지 총 115명중 24명이 참여했다. 황수숙 순창군수는 이날 모인 수상자들을 환영하며, 하루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한 행사는 수상 이래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그 간순창을 위해 노력한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황 군수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견학은 오전에 건강장수연구소 방문에 의농연체협시관과 건강장수체험과학관을 둘러보며, 인바디 체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치유 관광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중인 실

(SH)랜드 조성사업과 수(水)체험센터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도 함께 청취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발효소스도굴과 투자선도지구 현장 방문이 이어졌고, 박남재 화백이 운영하는 섬진강 미술관도 견학했다. 또 270m 출렁다리 조성공사가 한창인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현장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출렁다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며, 현장을 방문한 수상자들은 "순창군이 관광산업의 미래가 밝다"라며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장교철씨는 "순창의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나니 군민의장 수상자로서 더욱더 자긍심이 생기고 앞으로도 순창군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 마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의 날 운영

임실군산림조합(조합장 정인준)은 산림경영지도사업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매일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경영지도원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관촌정도로 산주·임업인을 찾아가 조합홍보지와 산림경영 지도 안내지를 배부하며 조합의 주요 업무를 설명하고 2019년도 사유림경영안내 자료를 통해 산림경영기술지도와 정부의 산림정책 소개, 임

업세제 혜택 및 각종 임업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정인준 조합장은 "산주와 임업인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산림경영 기술지도를 시행하여 산림조합의 가치를 높이겠으며, 임산물 재배능가 및 산주들의 산림경영에 대한 신뢰를 배가시켜나가고 산림경영 지도활동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보건소, 베이비 마사지교실 운영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에서는 아이의 성장발달을 위해 육아전문가를 초청해 생후 2~8개월 영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셋째, 넷째 주 화요일에 베이비 마사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마사지는 아이의 몸을 부드럽게 만져줌으로써 뇌속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림프관에 영향을 주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등 신체발달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피부접촉으로 정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마사지교실에 참여한 엄마들은 기저귀 갈 때,아플 때, 목욕 후에 해주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며 유익한 시간 되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피서철 생활오수 줄이기 홍보

남원시가 피서객들에게 지리산 뱀사골 계곡의 맑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립공원지역인 뱀사골 지역 등에서는 매년 여름 피서철에 식품접객업소와 펜션 등에서 많은 물 사용으로 인해 깨끗한 계곡수 오염 우려는 물론 생활오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뱀사골지역에는 달궁처리장을 비롯해 산내면 소재지까지 9곳의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이 있으나, 해마다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많은 하수가 유입되어 지난해에는 처리시설을 보강하고 처리효율을 높이는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피서철에는 많은 피서객 유입에 따른 서비스업소가 증가하면서 배출하는 생활오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원시환경사업소에서는 휴가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남원시의 식품종양회 및 관련업소 등을 상대로 하수처리시설 집중관리와 업소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 이외에 "주방 외부에서 쓰는 하드웨어물이 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생활오수 줄이기 협조요청 및 홍보와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에 자장을 주는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쓰레기 하수구 투입금지 및 변기 욕약품 등 합성세제류 사용을 자제하도록 홍보하는 등으로 뱀사골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맑고 깨끗한 계곡과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